

# 카페, 근대 유흥 공간과 문학

서지영\*

1. 머리말
2. 1930년대 도시문화와 카페
  - 1) 에로티시즘의 식민성
  - 2) 데카당스적 향락과 연애의 실험
3. 문학 속의 카페 공간
  - 1) '여급 문학'의 탄생
  - 2) 제도의 균열과 위반의 상상력
4. 맺음말

---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 국문초록

1930년대 도시 경성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흥공간인 카페는 일본을 통해 유입된 서구 근대문화의 식민지적 발현물이면서, 여급이라는 일군의 여성들이 에로티시즘의 상업적 유통에 긴밀히 관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당시, 지적능력과 더불어 일정 정도의 경제력을 확보했던 카페여급은 카페를 찾는 남성들에게 직업적으로 데카당스적 쾌락을 제공하는 동시에, 스스로도 자유연애를 체험하고 향락을 소비하는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카페를 둘러싼 여급과 남성 고객과의 유희적 만남은 1930년대 많은 소설들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되어 있다. 여급이 등장하는 많은 소설들에서 그들은 지식인 남성과 자유연애를 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도, 일부일처 결혼제도 속으로는 편입되지 못하거나 결혼제도 밖에서 불륜의 대상으로 머무르는 타자적 위치를 드러낸다. 하지만, 일부 작품에서 여급은 전통적인 남녀간의 젠더 위계를 위반하고 사랑과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근대적 규범을 전복시키는 위협적인 이미지를 통해 남성 중심의 욕망을 재구조화하는 근대 연애결혼 제도의 균열을 야기하고 그 틈새를 가시화시키게 된다.

핵심어 : 카페, 여급, 유흥, 에로티시즘, 자유연애, 일부일처제, 섹슈얼리티

## 1. 머리말

1920~30년대 경성은 남촌(일본인 거류지)과 북촌(조선인 중심지)의 이분적 구도 속에서 백화점, 음식점, 영화관, 음악회장, 다방(꺾다점), 카페와 같은 근대적 소비 공간들로 가득 차게 된다. 이 가운데 새로운 도시 문화의 지표로 등장한 카페는 일본을 통해 유입된 서구문화의 식민지적 발현을 표상할 뿐 아니라 상업적 구도 속에서 에로티시즘이 새로운 방식으로 유통되는 근대적 유흥공간으로 자리하게 된다.<sup>1)</sup> 카페는 1910~1920년대의 대표적 유흥 공간으로서 기생이 자리하는 '요리집'을 대체하게 되는데, 1930년대에 전성기를 맞은 카페는 서구적 기호물(커피와 양주, 서양음식, 잼즈, 사교춤)과 이를 매개하는 '여급'(웨이트레스, 카페걸)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흥 풍속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카페는 일본을 거쳐 유입된 근대 문화의 식민지적 특수성과 더불어, 근대 유흥산업이 양산한 에로티시즘과 여성이 관계 맺는 역사적 방식을 문제 제기한다. 당시 카페 고객들 가운데에는 학생, 신문기자, 문인 등의 지식인 남성들이 한 무리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카페가 제공하는 갖가지 서구 취향의 소비욕구를 향유할 뿐 아니라 여급들과의 유흥적 만남을 즐기게 된다. 이러한 지식인 남성 문인들의 카페 체험과 여급의 존재성은 당대 사회의 욕망의 형식에 긴밀히 연계할 뿐 아니라

1) 지금까지 식민지 시대 경성 '카페'에 대한 사회사적 연구로 장규식, 『일제하 종로의 문화공간』, 『종로: 시간, 장소, 사람』, 권오만 외(서울학연구소, 2002); 목수현, 『남촌 문화-식민지 문화의 흔적』, 『서울 남촌: 시간, 장소, 사람』, 김기호 외(서울학연구소, 2003); 김연희, 『일제하경성지역 카페의 도시문화적 성격』(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02) 등이 있다. 문학에서 카페여급을 다룬 최초의 논의로 안미영의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급고찰-李箱의 여성관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3호, 2000)가 있으며, 그 밖의 논의로 拙稿, 「식민지 시대 카페여급연구- 여급잡지 <女聲>을 중심으로」(『한국여성학』 19권 3호, 2003); 「식민지 근대 유흥풍속과 여성 섹슈얼리티- 기생과 카페여급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65집, 2004); 「여성의 몸과 근대적 욕망의 지형도」, 『여성의 몸』, 한국여성연구소 편(창작과비평사, 2005)이 있다.

이를 소재로 한 다양한 문학적 재현물들을 양산하게 된다. 본고는 식민지 유흥공간으로서의 카페가 가지는 문화사적 성격과 더불어, 지식인 문사를 포함한 남성 고객과 카페여급 사이의 만남의 형식을 추적함으로써 카페 공간 속에 발현된 향락의 작동 원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당대 문인들의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카페와 여급의 재현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근대 문학의 지형도 속에서 카페공간과 여급의 의미망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1930년대 도시문화와 카페

### 1) 에로디시즘의 식민성

전근대 시대 풍류공간의 전통을 잇는 요리집과 기생을 대체하여 등장한 카페는 식민지 근대를 구성하는 기호물 중의 하나이다. 1910~20년대 ‘요리집’은 전통가무 공연과 더불어 기생이 지닌 독특한 ‘조선적’ 아우라를 바탕으로 당대 유흥 문화의 중심역할을 하였지만, 1930년대 카페는 요리집에 비해 그 분위기나 절차, 화대(팁) 등에 있어서 훨씬 대중적이고 근대적인 방식으로 도시 일상 속에 침투하게 된다.<sup>2)</sup> 카페는 원천적으로 르네상스 이후 18세기까지 절정을 이루었던 서유럽 귀족들의 문화공간인 살롱을 이어서 중산층과 시민층의 사교, 유흥 및 정치적 여론 공간으로 대중화되었던 공간이다.<sup>3)</sup> 그런데 이러한 카페는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젊은 남자(보

2) “엇쨌든 시간비주고 불너모시는 거북한 기생아씨보다 일원한장만 내노흐면 멋시 간식 손목도 잡고, 뺨도 대여주고, 신식창가, 사교댄스까지 흥을 도드와 주인 미인이 칠팔명 십여명씩 들끓는 카페가 세월을 맛나지못할 리가 업다.”(이서구, 『실사일년간 대경성암흑기종근기-카페,마작,연극,밤에 피는 꽃』, 『별건곤』 1932.1, p.34)

3) 크리스토프 르페뷔르, 『카페의 역사』, 강주현 역(효형출판, 2002) ; 루이스 A. 코저, 『살롱, 카페, 아카데미-지식인과 지식사회』, 이광주 역, 지평문화사, 1993; 大林宗嗣, 『女給生活の 新研究(1932)』, 『近代婦人問題名著選集- 社會問題編 第三卷』(東京: 日本圖書センター, 2002), p.165.

이)가 아닌 여급이 시중을 들고 고객과의 성애적 상호 작용을 요구하는 일  
본적 코드로 재창조되어 식민지 조선으로 유입된다.<sup>4)</sup>

가장 燦爛한 ‘네온사인’을 장치하고 가장 화려한 장식을 한 곳은 ‘카페와 빠’  
이다. 칙칙하게 조명한 꿈나라와 가튼 기분을 일으키는 실내에서 식그러운 ‘짜  
쓰’ 곡조가 흘러나온다. 문전에는 미려한 일본옷이나 양복을 입고 분을 희박과  
가치 바른 묘령의 미녀가 눈짓으로 드러오라는 인사를 한다. 실내에는 대개 좌  
우 便壁에 대어서 ‘씩스’(마치 기차의 좌석과 가치 두사람이 안줄 수 있는 키  
높은 좌석을 두개 대치하고 그 중간에 조고만 탁자를 노흔 설비)를 배치하고,  
중간중간에는 응접실 설비와 가튼 형식으로 ‘테블’과 안락의자를 배치하여 노  
았다. 구석편 정면은 ‘빠’로 되어있으며 그 안에는 오색의 영롱한 이름도 모를  
양주병이 櫛比하게 벌여놓고, 흰 저고리에 거문바지를 입은 남자씨가 잔득  
버티고 서있다. 손의 주문여하에 따라 여급이 손에게 대한 서비스의 厚薄이 결  
정된다.<sup>5)</sup>

동경의 한 카페를 묘사하고 있는 위 글은 실제로 1930년대 식민지 조선  
의 카페와 거의 유사하다.<sup>6)</sup> 당시 카페의 내부 장식은 서구식과 일본식의  
혼합적 분위기이며, 위스키와 일본술(아사히, 삿포르 맥주), 짜즈와 블루  
스, 유행가, 신민요 등의 다국적 음악으로 채워졌다. 카페이름은 남촌의 경  
우 일본식(銀座, 赤玉 등)을 따르지만, 북촌의 경우 낙원, 목단, 엔젤, 평  
화 등 영어와 한국어가 혼합된 형태이다. 카페여급 또한 식민지 근대의 문  
화적 혼성물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급들은 일본식 이름(예명)으로 불리며,  
복장은 양장에 에이프런을 두르고 일본말로 접대하는 등 태생적으로 일본

4) Miriam, Silverberg, 「日本の女給はブルースを歌た」, 『ジェンダ-の 日本史下  
- 主体と表現 仕事と生活』, 庄山則子 譯, 脇田 晴子, Miriam, Silverberg 編(東  
京: 東京大學出版會, 1995), pp.595~599.

5) 東京居士, 「도회의 밤- 동경의 밤」, 『신동아』(1932.8), p.77.

6) 1930년대 동경 카페의 분포현황은 목수현(2003), 장규식(2002), 김연희(2002)의  
논문 참조.

의 카페 문화에 기원을 둔 존재들이다. 이들 조선인 여급들은 또한 일본 여급과 유사하게 고객에 대해 ‘에로서비스’를 하도록 요구받았다.<sup>7)</sup> 인텔리 문사들의 **고상한** 서구취미 및 예술적 취향을 형성했던 **다방과는 달리**,<sup>8)</sup> 여급의 에로틱한 자극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카페의 퇴폐성은 주수입인 팁을 얻기 위해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하는 여급들의 노동조건에서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이러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카페의 대중화와 에로티시즘의 상업적 **확산**은 일본 ‘내지(内地)’의 향락 산업 및 성 풍속이 식민지 조선으로 이동한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메이지 말년과 다이쇼 시대에 급속히 확산된 카페는 당시 ‘에로, 그로, 년센스’라는 구호를 유행시킨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퇴폐적 문화의 한 현상으로 설명된다.<sup>9)</sup> 다이쇼 말기(20년대 초반)와 쇼와 초기(20년대 중후반) 일본 사회의 유행으로 떠오른 ‘에로, 그로, 년센스’라는 용어는 1차대전이후의 호황이 다이쇼 말기와 쇼와 초기에 이르러 불황으로 이어지고,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우익과 충돌 하는 상황에서, 좌에도 우에도 속하지 않고 철두철미한 소비적 퇴

7) “카페가 손님을 이끄는 것은, 소위 “카페의 기분” 때문이다. 그 기분은 현란한 실내장식, 어두운 조명, 소란스런 음악의 맛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것들에도 카페 기분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조금 있다. 그러나 카페의 기분에 필요한 것은 유혹적 여급의 교성과 에로틱한 교태, 자극적인 복장…… 그러한 것들이 **발산하는 매력이 풍부한 공기**가 바로 그것이다.”(村島歸之, 『歡樂の王宮, カフェー』(昭和四年), 『近代庶民生活誌 10- 享樂・性』, 南博 編, 東京: 三一書房, 1988, p.320)

8) “다방이 창백한 인텔리층의 공간이라면, 카페와 바는 술과 성과 음식이 존재하는 공간이다.”(목수현, 앞의 글, p.259) 당시 커피와 홍차 등의 음료를 제공하며 예술적 분위기를 형성했던 ‘깍다점’(다방)과 술, 여급의 에로서비스와 갖가지 유희적 행위가 이루어졌던 퇴폐적 분위기의 카페는 당시 인텔리 남성 문인들의 자의식 형성에 각기 다른 경험을 제공한 상이한 기능의 두 공간으로 파악된다. 식민지 당대 모던한 감각과 고상한 이국취미를 문인들에게 제공하고 사교와 토론의 장 역할을 했던 ‘다방’의 의미를 포착한 논의로 손유경, 『1930년대 다방과 ‘문사’의 자의식』, 『한국문학과 풍속 1』, 한국현대문화회 편(국학자료원, 2003), pp.93~119 참조.

9) 藤目ゆき, 『性の歴史學』(東京: 不二出版, 1998), pp.287~288.

폐화로 치달았던 일종의 거품과 같은 사회현상을 지칭한다.<sup>10)</sup> 이러한 일본사회의 역사적 산물로서의 ‘에로, 그로, 넌센스’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한국으로 유입되어 당대 사회를 특징짓는 유행어로 확산되며, 이는 1920~30년대 한국 카페를 중심으로 양산된 에로티시즘의 식민성을 반영하는 용어로 자리하게 된다. 그런데 1930년대 당시 대표적 사회주의 계열 잡지인 『비판』에 실린 한 기사는 이러한 ‘에로, 그로, 넌센스’ 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다.

1930년은 모보, 모가를 압서 에로, 그로로써 저물고 말었다고 한다. 사실 1930년은 에로, 그로가 무대(舞台)일면에 도량난무하는 해 였다.(중략) 원래 이 에로 그로라는 것이 경향은 결코 우연이나 또는 착각에서도 생기는 것이 아니다. 혹은 말하되,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라고도 하며 호기적 찌나리즘이나 흥행사 카페- 경영자의 창작물이라고도 하는 등 별말을 다한다. (중략) 유산 계급의 소비력이 확대되고 다양해지면, 제일 먼저 주목되는 것은 인간성질에 가장 깊히 뿌리 박혀있는 성욕과 식욕을 충만시힐 방법의 변화 그것이다. 1930년의 무대에서 광양한 에로 그로의 경향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달되고 자본축적이 풍부하여지고 유산계급의 소비력이 확대되고 다양화하였기 때문에 큰 필연적 부산물이고 별다른 것이 아니다<sup>11)</sup>

이렇게 ‘에로, 그로, 넌센스’를 자본주의 유산계급의 타락 현상으로 보는 계급주의적 시각은 ‘모더니즘’, ‘모던보이’, ‘모던걸’과 함께 카페문화를 자본주의 비판의 근거로 삼는 많은 담론들을 양산하였다.<sup>12)</sup>

모더니즘의 구성원은 모보모거요, 그것의 양식은 짜스, 뎀스, 스피드, 스포츠이요 그것의 표현은 에로, 그로, 넌센스, 잇트이다. 모보모거의 근거지는 유

10) 大宅壯一, 「エロ・グロ・ナンセンス 時代」(1954), 『闊歩する モボ・モガ』, 清原康正・鈴木貞美 編(東京: 作品社, 1991), pp.61~64.

11) 錦農生, 「에로・그로의 사적 고찰」, 『비판』(1931.5.1), pp.127~130.

12) 유광렬 외, 「모던걸-모던보이-대논평」, 『별건곤』(1927.12), pp.112~120.

한계급의 지역이다. 그들의 출산자는 현대자본벌이다. 모보모거의 생활환경은 기계문명이다. 모보모거의 지도원리는 나리킨(成金) 근성, 속악적 취미, 제일주의로써 도장한 바 아메리카니즘이다.<sup>13)</sup>

당시 모더니즘을 ‘모던보이’와 ‘모던걸’의 일본적 명명인 ‘모보’·‘모가’, 재즈와 댄스로 대표되는 카페, ‘에로, 그로, 년센스’ 등으로 설명하는 위 글은 모더니즘을 자본주의와 미국의 기계문명에 근원을 둔 유산계급의 문화양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 글에서 “스트리트(街路)”는 “에로, 그로體의 遊步場이요 그것의 發散體”이며, 카페는 재즈와 댄스를 위해 모보(모던보이)와 모가(모던걸)이 찾는 주된 공간이 된다. 이렇게 카페로 대표되는 다이쇼 시대 퇴폐문화의 식민지적 발현은 이념의 층위에서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들의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하지만, 일상의 층위에서 그것은 당대 지식인 남성들의 새로운 체험의 영역을 열어놓게 된다.

## 2) 데카당스적 향락과 연애의 실험

1930년대 카페의 고객들은 실업가, 회사원, 은행원, 점원, 학생, 선생, 기자, 모뻬, 부락자, 지식인, 문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일상의 층위에서 당대의 카페는 여급을 포함하여 갖가지 근대적 기호물들로 가득 찬 ‘환락의 전당’이자, ‘청춘의 위안지’였다.<sup>14)</sup> 다양한 계층의 남성들에게 열려 있었던 카페는 특히 지식인 남성들의 경우 식민지적 현실과 이념적 고민으로 인한 번민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sup>15)</sup> 하지만 당대 카페는 무엇보다도 돈(팁)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여급과 남성 고객 간의 유희적 만남이 문제시된다. 카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여급은 술시중과

13) 오석천, 「모더니즘 戲論」, 『신민』(1931.6), p.29.

14) 박로아, 「카페의 정조」, 『별건곤』(1929.10), pp.42~45 ; 김을한, 「京城夜話」, 『별건곤』(1930.7), p.87.

15) 趙龍兒, 「콩트 <카페 B>에서」[신춘문에 콩트 선외가작], 『조선일보』(1932.1.12).



더불어, 에로티시즘을 파는 여성이었다.<sup>16)</sup> 이렇게 ‘에로서비스’를 행하는 카페여급은 당시 신문이나 잡지, 소설 담론 속에서 정조를 파는 성노동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었다.<sup>17)</sup> 또한, 당대 여급은 외형적으로 서구적 치장을 하고 일정 정도의 지식과 사교술을 바탕으로 하여 당대 사회의 욕망의 기호물인 ‘모던걸’의 이미지를 상품화하였던 존재이기도 하였는데,<sup>18)</sup> 사회주의 지식인 남성들에 의해 이들은 ‘물질주의와 아메리카니즘에 중독되어 허영과 사치를 일삼는 유녀로서의 모던걸’, 성적으로 문란한 ‘불량소녀’, ‘탕자(蕩子)’, ‘못된 걸로서의 모던걸’로 재현되었다.<sup>19)</sup> 당시 여급에 대해 “가정형편에 잇글러 마음에 없는 직업에서 시드러버리는 무산계급의 여성들”로서 ‘직업전선’에 나선 근로여성으로서의 입지를 일부 인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여급은 “자기들 스스로가 환락과 어두운 허영에서 빠져 생활의식도 없이 덮어놓고 향락경으로 타락해온 여성들”로 재현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하지만, 사창(私娼)이나 타락한 유산계급에 기생하는 부정적 이미지의 ‘모던걸’ 형상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당대 여급들의 특수한 존재양식이 문제시된다. 비록 대부분의 여급들이 카페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경제 구조 속에 있었지만, 당시 여급은 평균 보통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계층이었으며, 여학교 출신의 인텔리 여

16) “에로 써비스하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꺾들의 수입은 만아져야할 것이라 스스로 에로의 강력적 발전을 요구하게 된다. 에로를 공연하게 앓고 넓게 발산함으로써 商賣하는 직업이라 짧은 시간에 가장만한 손을 對하게 하여 그 허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強烈한 에로의 刺戟을 주려는 것이니”

S. S 生, 「환락의 대전당: 카페」, 『신동아』(1932.6), pp.61~62.

17) S. S 生, 앞의 글, p.63.

18) 모던걸이 “대개 단이는 곳은 <카페>, <劇場>, <酒店>의 花柳 옥어진 그 속에서 그들의 정체를 발견한다하며 또 어느때는 내게도 발견된다” 박영희, 「有産者 사회의 所謂 <近代女> <近代男>의 特徵」, 『별건곤』(1927.12), p.115.

19) 박영희, 앞의 글, p.116; 최학송, 「데카단의 상징」, 『별건곤』(1927.12), pp.119~120.

20) 木具生, “카페-의 縱橫과 學生群의 出沒”, 『동방평론』(1932.5), pp.49~51.

성이나 여배우를 포함한 당시 일급 여급들은 외적 지명도와 고수입을 바탕으로 대중 스타의 대우를 받기도 한다. 또한 당대 여급은 스스로를 직업여성으로 인식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보다 조직적인 형태의 조합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1)</sup> 한편 당시 여급들은 당대 사회가 욕망하였던 자유연애를 상품화하는 존재로서 세련된 서구 취향과 지적 소양, 화술을 바탕으로 관능적 기술과 에로티시즘의 언어를 양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적극적인 유희 주체로 전이하기도 한다. 직업적 노동과 자발적 유희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여급은 남성들의 에로틱한 향락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그것을 향유하는 체험의 주체로 자리하게 된다.<sup>22)</sup>

이러한 카페와 여급을 찾는 당시의 고객 가운데에는 지식인 문인 남성들이 포함되는데, 그들의 카페 체험은 작가로서의 근대적 자의식 형성에 관여하면서 문화적 글쓰기의 영역으로 깊이 침투하게 된다.<sup>23)</sup> 카페가 활성화되기 이전, 일본을 배경으로 씌어진 염상섭의 <만세전>(고려공사, 1924)

21) 당시 여급은 일정한 월급 없이 한 고객으로부터 평균 1~2원(주로 1원)정도의 팁을 받았는데, 한달 수입은 보통 50~60원이며 일급인 경우 70~80원에서 백원 정도에 이른다(침고로 1930년대 당시 기지의 교사 평균 월급이 60~70원 정도이다.). 또한 1934년 4월 1일자로 발간된 여급잡지 『女聲』(女聲社)는 사회적 자각과 아울러 노동조합적 활동에까지 이른 여급들의 직업여성으로서의 입지를 보여준다. 교육수준이나 경제력 등의 여급의 구성조건, 노동 및 소비주체이자 유희주체로서의 여급의 특수한 존재양식에 대해서는 拙稿(2003) 참조.

22) 일본 카페 여급의 에로티시즘에 대한 논의는 Miriam, Silverberg, "The Cafe Waitress Serving Modern Japan", *Mirror of Modernity: Invented Traditions of Modern Japan*, Stephen Vlastos ed.,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8. 참조.

23) 김춘식은 <폐허>와 <백조> 동인을 퇴폐 혹은 방탕, 유희의 집단적 실천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활과 행위패턴을 특화시켜나간 최초의 예술가 그룹으로 보고 근대적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퇴폐, 관능, 향락, 타락의 체험을 제공하는 당대 요리집과 기생의 존재가 크나큰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 김춘식, 「근대적 문인 집단의 형성과 청춘의 감각」, 『한국어문학연구』 40집(2003), pp.297~320.

을 보면, 일본 유학 중인 청년 이인화가 자주 만나는 여급 영자는 여학생 출신으로 이인화와 의지한 연애를 꿈꾸지만, 그에게 여급의 존재는 정신적 압박을 일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희롱과 유희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카페 안에서 교류되는 연애감정은 피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성숙된 개인, 근대적 자아로 나아가기 위해 청산해야 할 감정의 찌꺼기이며 카페와 같은 **향락공간**은 부차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하지만, 카페가 새로운 **유흥공간**으로 확산되었던 1930년대에 풍속이 본격적으로 문학적 양식을 통해 미학화되는 과정에서 카페는 도시산책자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도회적 문물 중의 하나가 된다.<sup>24)</sup>

박태원의 초기 작품인 「寂滅」(『동아일보』 1930.2.5~3.1)에서, 카페는 ‘술과 계집과 껌즈와 우습이 잇는 곳’으로 묘사된다. 주인공이 문득 들어가는 카페는 하루 종일 골방에서 습작으로 시름하던 작가가 지향 없는 밤 산책을 하는 길에 들르는 유흥 공간이면서, 나아가 갖가지 인간 **군상**들을 만나고 거기서 만난 한 인물을 통해 인생을 탐문하고 자신의 실존적 존재방식을 성찰하는 계기를 얻게 되는 공간으로 자리한다.<sup>25)</sup> 그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조선중앙일보』 1934.8.1~9.19)에서도 카페는 경성 거리를 배회하며 식민지 현실의 **압울함**, 근대 문명의 익명성과 비인간성에 맞서던 도시의 남성 산책자가 들르는 주요 코스 중의 하나이다. ‘낙원정 카페’에서 들러 ‘노는계집’인 여급들과 마주앉아 가벼운 희롱을 하면서 풍속의 관찰자로서의 시선을 유지하는 구보는 카페 앞에 ‘여급모집’이라는 문구를 보고 주저하는 젊은 여성과 마주치면서 가족 제도 안팎의 수많은 여성들을 카페로 유인하였던 당대 사회의 한 풍경과 만나기도 한다. 그런데 남성문인에 의해 포착되는 카페와 여급은 이러한 풍속의 표면적 이미지를 넘어서

24) 조영복, 『한국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다운샘, 1997), pp.64~70.

25) 박태원, 「寂滅」 1930.2.5~3.1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이주형 외 편(태학사, 1988), pp.11~15.

당대 사회가 발현시킨 근대적 욕망의 심층을 문제 제기한다. 1910~20년대 초 요리집을 '순례'하였던 <백조> 동인들이 “그 豪華한 요정의 분위기는 현금 陰鬱 잡다한 茶房俗味에는 비할 수도 없이 豪大한 무엇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며 “밤마다 흥등의 거리를 해매인 생활의 암흑면과 가면을 쓴 도덕의 밑바닥에 인간악의 잔인한 자태를 찾아내어 폭로시키려는 진리의 사도”임을 자부했듯이,<sup>26)</sup> 1930년대 카페 공간 역시 문인들의 문학적 글쓰기를 통해 공적 공간에서 추구되었던 개인의 향락의 형식과 더불어, 가족 제도 외부에서 구성되는 연애와 섹슈얼리티가 제기하는 다양한 층위의 문제들을 가시화시킨다.

### 3. 문학 속의 카페 공간

#### 1) '여급문학'의 탄생

『조선일보』 1939년 8월 8일자 기사에는 당대 카페와 연애 풍속 그리고 문학의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글(“女給文學(斬馬錄)-女給을 主人公으로한 短篇小說이 壓倒的[孔明]”)이 실려 있어 주목된다.

연애는 어쩐지 삼각형을 그리려는 경향이 있다. 저 '피타고라스'도 미처 생각지 못한 '性的 物理'다. 그런데 현대의 모든 연애의 邊의 하나는 '카페'나 '빠'에 버치고 있다는 설도 있다. 그 증거로는 文章 특집, “三十二人集”의 단편의 대다수가 여급을 취급했다. 여급은 '유행'을 지도하고 '婦人(?)'을 지도하고 '파-마넨트'를 지도하고 '스타일북'의 독자를 양성하고 드디어는 오늘의 단편소설에 압도적 여주인공으로서 군림했다. (중략) 작가가 가장 쉽사리 접촉하고 있는 여성이 첫째로 그 부인이고 다음은 아마 여급일게라고까지 삼단논법을

26)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측면사」, 『한국문단사』(삼문사, 1982), p.124, p.135.

전개시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악용이겠으나, 일세의 작가의 대부분이 붓을 들어 여급을 주제로 한 소설을 쓴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오늘의 연애는 그들에게 독점되었다는 인상을 주기 쉽고 아무리 사실은 그러타치더라도 '오늘의 여성'의 전형이 그들이라는 인상을 점점 더 조장할 염려가 있다.

위 기사는 당시 『문장』사에서 발행한 『創作 三十二人集』(1939)<sup>27)</sup>을 '女給文學'이라는 표제를 붙여 소개함으로써 당대 소설에 여급이 얼마나 빈번하게 연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는지를 제기하고 있다. 연애를 독점한 여급이 자칫 당대 여성의 대표적인 여성상으로 고정되어질 것을 염려하는 위 글에서는 20~30년대 공식 담론들 속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 지표를 가졌던 여급과 카페 공간이 문인들의 체험을 관통하면서 문학의 안팎에 어느 정도까지 침투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위 작품집을 살펴보면, 많은 작품들이 여학교출신의 모던걸이나 여급, 기생을 주인공으로 하여 자유연애의 문제나 사랑의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다.<sup>28)</sup> 위의 『創作 三十二人集』 뿐 아니라, 1930년대 발표된 박태원, 이효석, 김유정, 李箱, 안희남 등의 많은 단편 소설들이 여급을 주된 인물로 설정하면서 여급이라는 존재를 초점화하고 아울러 여급과 지식인 남성(문인)의 로맨스가 지니는 다양한 지층을 드러낸다.

이러한 소설 속의 카페 여급들은 일차적으로 자유연애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사랑의 의미를 탐색하는 주인공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sup>29)</sup> 박태원의 단편 「깊은 어둠고」(『개벽』 1935.3)에서 하나꼬라는 예명

27) 이 작품집은 『문장』 7집의 임시증간 형태로 1939년에 발간된 것으로 보인다.

28) 이 작품집에서 카페여급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송영 「女僧」, 계용묵 「夫婦」, 현민 유진오의 「나비」, 정인택, 「動搖」 등이 있으며, 기생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김소엽 「破綻」, 이기영 「野生花」 등이 있다.

29) 실제로 당시 여급들은 카페에서 수많은 남성 고객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유연애의 기회를 가지고 결혼을 꿈꾸었다. 1934년 당시 〈낙원카페〉 여급 정정화는 "언제나 마음은 진실한 남성을 만나 '쓰윳흠'을 꾸미려하는 데 잊지요"라고 하여 근대 일부일처 결혼제도 속으로 편입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김동환, 이

을 가진 스무살 여급 향이는 무능력한 인텔리 유부남과 동거하면서 헤어질 수도 없고 첩도 될 수 없는 처지에서 불안한 사랑을 이어가는 인물이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여급의 연애는 근대적 사랑이 결혼과 이어지지 못하는 제도의 틈새를 암시한다. 이러한 결혼 제도의 주변부에서 경제력을 상실한 지식인 남성과 자신의 몸을 팔아 애인이나 남편을 부양하는 여급 간의 전도된 관계를 다루는 일련의 작품들이 양산된다.<sup>30)</sup> 『創作 三十二人集』에 실린 작품 중 하나인, 정인택의 〈動搖〉에서는 무능한 남편과 카페걸 사이의 기묘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카페에서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도 남편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순자에 비해, 남편은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과 아내를 카페에 내보내야 하는 현실을 견디지 못해 순자에게 결별을 선언한다. 사랑하면서도 헤어져야 하는 이들의 관계는 물질적, 도덕적 토대와 젠더위계가 충돌함으로써 야기되는 부부관계의 붕괴를 예시한다. 이러한 카페걸과 룸펜 인텔리 남성사이의 관계양식은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여성을 지배해왔던 권력을 상실한 남성의 자의식과 그로 인한 사랑의 균열을 보다 극적으로 드러내는 많은 소설들을 양산한다. 박태원의 〈悲涼〉(『중앙』 1936.1) 역시 카페여급 영자와 룸펜 인텔리 남성간의 전도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여기서서는 정조를 파는 애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지식인 남성의 굴욕적인 심리가 보다 강력하게 드러난다. 李箱의 작품들도 성적 자율권과 경제력, 지적 능력까지 갖춘 여급과 그러한 여성에 기생하는 인텔리 남성 사이의 전도된 위계 및 남성의 훼손된 자의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낸다.<sup>31)</sup>

서구 사회, 「인텔리 기생, 여우, 여급 좌담회」, 『삼천리』(1936.4), p.166.

30) 李箱소설을 중심으로 형상화되었던 식민지 당대 여급과 지식인 남성간의 기묘한 동거 관계는 안미영의 논의에서 먼저 문제 제기되고 분석된 바 있다.(안미영, 앞의 글, pp.309~310)

31) 李箱의 「지주회시」(『중앙』 1936.6)에서의 여급은 경제권, 성적 자율성, 지적 능력까지 소유한 자유분방한 유형이며, 이 작품에는 이러한 여성들에게 결박되어 있는 지식인 남성의 내면적 심리, 공포와 혐오가 잘 드러난다.(拙稿[2003] 참조)

한편, 당시 여급과 유부남과의 연애는 카페를 배경으로 하여 결혼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불륜의 형식을 가지화시키기도 한다. 안희남은 이러한 불륜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애인」(『여성』 1939.7~1940.3)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광식이 카페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여급 안나는 당대 카페에서 만날 수 있는 여급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안나의 말은 룡담인가 진담인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일이었다. 말뿐 아니라 안나같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행동거지까지가 정말인 듯하면서 거짓이었고, 거짓인 듯 하면서 정말이 있는 것은 광식은 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이란 말 한마디 안쓰면서 넉넉히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것도 안나의 이러한 기교에 연유함이며 또한 광식은 안나의 그런 점에 어느정도로 도로혀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sup>32)</sup>

관능적 매력과 지적인 소양, 연애의 기교까지 겸비함으로써 당대 지식인 남성들의 기호를 자극했던 안나 여급은 또한 남편이 있는 유부녀이기도 하다. 따라서 안나는 처음에는 유부녀인 자신의 처지를 의식하여 유부남 광식의 관계를 주저한다. 하지만, 안나는 점차 광식을 좋아하게 되면서 오히려 현실적인 상황을 계산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주도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광식의 경우, 안나와의 관계를 “사랑은 숭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위대하다는 관념”<sup>33)</sup> 속에 낭만화시키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는 끊임없이 안나와 아내 사이를 오가고 두 여성과의 관계를 비교하며 저울질한다. 또한, 안해와 안나를 다른 기질의 두 여성, 즉 아내를 전형적인 ‘정실부인’ 유형으로 그리고 안나를 ‘애인’ 유형으로 이분화하면서 두 유형의 여성을 동시적으로 취하려는 가부장제 내의 남성 인물의 전형성을 드러낸다.

32) 안희남, 「애인」 제4회, 『여성』(1939.10), p.197.

33) 안희남, 「애인」 제4회, 『여성』(1939.10), p.197.

광식은 변민하는 아내를 다음과 같이 위로한다.

당신같은 여자는 남의 정분이라는 조건에서 결혼할 수는 있어도 첩이라는 일홈밑에서 연애할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 안나는 자기뜻에만 맞으면 둘다 할 수 있는 여자관말요.(p.215)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해’가 자신의 연애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광식은 점차 안나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진척시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sup>34)</sup> 이렇게 가족 속 아내와 가족 밖의 애인 사이를 오가며 이중적 욕망을 추구하는 남성 인물은 안희남의 다음 작품에서 보다 무제적으로 드러난다. 그의 「탁류를 헤치고」(『인문평론』 1940.4~5)에서는 당대의 불륜 속에 남녀의 욕망의 공식이 보다 뚜렷하게 가시화된다. 남편과 아이를 두고 부모까지 봉양해야하는 가장(家長)인 여급 ‘순’은 고달픈 삶 속에서 유부남 ‘광’과 연애관계에 빠지면서 사랑을 통해 ‘참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인물이다. 순은 끊임없이 ‘진정한 애정’, ‘인격적 결합’에 바탕을 둔 사랑을 추구하지만, 유부남인 광은 “안해는 안해대로 깨끗하게 독점하여 두고, 순은 순대로 여급의 애인을 작만하고 싶은 허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결국, 그의 변심을 알아차린 후에 “참 사나희들은 여자마음과 다르구나. 알 수 없다!”라는 씩씩한 깨달음 속에 순은 도시를 떠나게 된다.<sup>35)</sup> 이렇게 안희남의 소설에서 유부남과 연애하거나 동거하는 여급은 규범을 이탈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사랑의 의미를 탐색하고 관계의 지속성을 열망하지만, 결국 결혼 제도 속으로 이입되지

34) 안희남, 「애인」 7회, 『여성』(1940.1), pp.215~216. 안희남의 「애인」은 제7회(『여성』 1940.1)를 끝으로 연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35) “그는 사실 안해도 아니요, 순도 아니요, 오직 두 아이놈들을 위하여 그 앞에 꾸부려 말이되어 가지고 그놈들을 등위에 태고서 함께 낄낄대며 마루바닥에서 등구는 그 세계만이 만족하고 좋았다.” 안희남, 「탁류를 헤치고」, 『인문평론』(1940.5), p.193.



못한다. 그들은 바로 일부일처제의 결핍을 보충하는 유희적 성애 또는 낭만적 연애의 대상으로서 소비되었던 당대 여급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카페 여급과 지식인 남성 사이의 연애를 소재로 많은 작품을 남겼던 안희남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지고지순한 연애의 감정은 지고지순한 결혼의 감정과 지고지순한 문학의 감정을 생산한다. 나는 소설쓰는 여자도 싫고 여자가 쓴 소설도 싫고 소설 속에 나오는 여자도 싫고 하지만, <베아트리체>를 <단테>가 숭상한 것처럼 한 여자를 애인으로 섬기는 것만은 좋아한다.”<sup>36)</sup>

여성을 보편주체로 또는 문학 생산의 주체로 인정하지도 않으며 다만 연애의 상대로서 ‘애인’만을 인정하며, 문학 작품 속에서 에로스의 대상으로서 여성 이미지를 신비화하려는 안희남의 태도는 카페여급을 가족 밖의 성애적 관계에 한정하여 향유하고자 했던 가부장제 내 남성들의 전형적인 욕망과 맞물린다.

## 2) 제도의 균열과 위반의 상상력

안희남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급들은 연애에 적극적인 주체이지만, 결혼 제도 밖에서 유부남의 연애 상대로 소비되면서 결국 그 로맨스로부터 소외되는 타자의 위치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그의 또 다른 작품은 여급이 결혼 제도 안으로 유입되면서, 여성에 부과된 전통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한 여급의 불온한 이미지로 인해 결혼 제도 자체에 균열을 가해지는 지점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상(李箱)의 작품에서 남녀간의 물질적, 성적 권력의 전도에 대응하는 남성 지식인의 이율배반적 시선이나 유진오의 작품에서 현모양처 이미지를 이탈하는 여급에 대한 냉소적 시선 등은 모두 관습을

36) 안희남, 「여성과 문학」, 『문장』 1권 9호(1939.10), p.152.

이탈하는 여급을 통해 결혼 제도 내부의 틈새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남성의 불안한 시선은 안희남의 「번민하는 잔룩씨」(『인문평론』 1939.10)에서 아내로 인해 신경쇠약에 걸리는 남성 주인공의 히스테리한 시선으로 전이된다. 위 작품에서 다방을 경영하는 남자주인공의 아내 임순은 전직 여급 출신으로 결혼 후에도 끊임없이 남편의 의심을 받는 존재이다. “원체 훌쩍빠진 여자”(p.168), “분방한 계집”(p.168)이라는 고정관념과 아울러 그녀에 대한 갖가지 괴이한 소문들로부터 늘 자유롭지 못한 남편은 언제부턴가 다방을 찾는 남성고객 김영식과 아내 사이를 의심하면서 극심한 의치증에 빠져들게 된다. “아내에 대한 열 가지 백가지 의심”(p.170)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는 주인공은 “남이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비밀과 번민과 우울”(p.170)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는 여성 자체에 대한 전면적 부정으로 이어진다. 그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평양 기생 출신이었음을 상기하고 어머니를 의심하여 자신의 부계 혈통을 의심하고 나아가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데까지 나아간다.<sup>37)</sup> 결국 김영식이 아내 임순의 전 남편이었으며, 자신이 김영식으로부터 아내를 빼앗은 가해자였음이 밝혀지는 반전을 보여주는 위 작품은 여급이 가지는 일탈적인 존재성이 가족 제도 속에 편입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위협하면서 가족 속의 남성의 위치를 교란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당대 여급을 다룬 소설들 가운데에는 결혼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주변부적 사랑의 주인공이나 사랑이나 결혼 속에서 젠더 시스템의 균열을

37) “영식이야 임순이가 사권지는 얼마안된다 치드라도 방종한 계집의 짓을 누가 알랴. 내 어린 자식이 과연 내 어린 자식이야 아니냐하는 것 뿐만이 아니다. 나는 우리 아버님의 정말 아들이냐 하는 것까지도 믿을 수 없다. 임순이가 낳아놓은 아이가 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런 것 같이 나도 나의 아버지의아들이 아니요, 그러면 내가 임순이 아이의 정말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나의 아버지도 정말 나의 아버지가 아닐 것이다.” 안희남, 「탁류를 헤치고」, 『인문평론』(1940.5), p.174.

야기 시키는 여급의 이미지를 넘어서, 세상에 대한 보다 위반적인 시선을 제기하는 여급이 발견되기도 한다. 1934년 발행된 여급잡지 『女聲』에서 “연애란 그네들의 一時的 遊戯物일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情熱的이지요 生命까지 밟쳐도 좇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瞬間이 지나면, 어느때 그런일이 잊섯는가 합니다. 男子는 모두가? 妖術師. 甘言利說은 妖術師의 道具이지요”<sup>38)</sup>라고 고백하는 〈白馬〉 카페 여급 京子の 대남성관은 카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애의 유희적 본질을 일면적으로 시사한다. 이효석의 많은 단편들에 등장하는 여급은 이러한 낭만적 연애의 허구를 지시하고 있는 현실적 인물로 그려진다. 「薔薇 病들다」(1938)에서 주남죽이라는 여성인물은 한때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던 막스걸이었지만 결국 카페여급으로 전락한 인물이다. 우연히 다시 남죽과 만나게 된 사회주의 지식인 현보는 과거 남죽의 빛나던 모습을 기억하며 그녀와의 로맨스를 새롭게 꿈꾼다. 현보는 ‘7년 동안의 비밀’을 노출하지 않았던 수수께끼적인 인물, 남죽과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지만 서사의 결말에 이르러 그녀는 결국 현보의 기대와 환상을 여지없이 배반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무능력한 현보와 만남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남죽은 카페에서 부랑자와의 희롱을 즐기며 그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결국 잠적해버리는 인물이다.<sup>39)</sup> 이 작품에서 남죽은 남성 주인공의 낭만적인 로맨스에 대한 환상을 여지없이 깨뜨릴 뿐 아니라, 가족제도 외부에서 경제력을 확보해야 했던 여급의 생존 조건과 더불어 성과 사랑에 관련된 규범을 위반하는 여성 이미지를 제기한다. 이효석의 단편 「聖餐」(『여성』 1937.4)에 등장하는 여급 보배 역시 이러한 카페안의 연애가 가지는 허위적 본질을 간파하고 근대적 사랑 및 결혼의 개념을 전복시키는 인물이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바걸 민자와 남성고객 준보의 연애 및 결혼에 대한 꿈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보배는 결국 준보를

38) 일기자, 「여급의 남성관-〈백마〉의 京子를 차자서」, 『女聲』(1934.4), p.38.

39) 안희남, 「薔薇 병들다」, 『이효석 전집 2』(창미사, 1983), p.193.

유혹함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 특히, 보배는 남성과의 연애를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풍성하게 즐기는 '식탁위의 진미'로 비유하면서 일부일처제와 낭만적 사랑의 판타지에 저항하는 현실적 시선을 드러낸다.<sup>40)</sup>

안희남의 단편, 「에레나裸像」(『청색지』 1938. 1938.6)에서 여급 에레나 역시 “작구 여급으로써의 경력을 닦아 점점 능글차며 불순해지는” 인물로서 여성에게 주어진 관습적 규범과 남성의 통제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인물이다. 그녀는 카페 안팎으로 갖가지 부정한 품행에 관련된 소문 속에 존재하며, 자신에게 미혹되어있는 남성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변명하고 소문을 무마시키면서 거짓 환상을 불어넣는 책략의 소유자이다. 이렇게 남성들의 시선에서 볼 때 위협적이면서도 관능적 매력과 연애의 기술로 상대 남성들을 굴복시키는 여급 이미지는 『創作 三十二人集』에 실린 현민 유진오의 「나비」에서 극대화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여학교 출신인 유부녀 여급 프로라는 경제적 곤란으로 남편의 허락 하에 카페에 나가게 되는데, 전문학교 출신의 무능력한 남편은 카페길 '프로라'의 바깥 생활과 그녀의 부정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무기력한 인물이다. 이에 반해, 프로라는 카페 안에서 그녀를 찾는 단골 고객 7명(화가, 회사원, 부랑자, 부호, 월급쟁이, 인텔리, 광산업자 모던뽀이)과 다양한 형태의 유희적 애정 관계를 체험한다. 프로라가 겪는 인간애육의 다양한 체험은 유부녀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규범을 이탈하는 타락한 여성의 이미지와 교차해있다.<sup>41)</sup> 또한 프로라를 희화화시키는 재현 행위 이면에는 경제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도덕적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여급에 대한 남성들의 불안과 경계의 시선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물질 토대의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젠더 위계, 그리고 사랑과

40) 이효석, 「성찬(聖餐)」, 『여성』 2권 4호, p.61.

41) 현민, 「나비」, 『創作 三十二人集』(문장사, 1939), p.210. 이효석의 「성찬(聖餐)」과 현민의 「나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拙稿(2005) 참조.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근대적 규범들을 위반하는 위협적인 여급 이미지들은 부르주아 남성 계급의 욕망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되었던 근대 연애결혼 제도 내부의 틈새를 내보일 뿐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통해 쾌락을 발견하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경계적(전이적) 지점 또한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 4. 맺음말

1930년대 한국 사회에서 카페는 새로운 서구 근대 문화가 전통의 기호를 압도하며 침투하는 전초지이면서 일본식의 굴절을 겪은 식민지적 모더니티가 쾌락의 형식으로 발현되는 역사적 공간이다. 한편으로 당대 카페는 자본의 개입 하에 여성이 남성의 다양한 유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여성은 철저하게 쾌락의 대상으로 타자화시키는 '젠더화된'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대 카페 안에서 양장 또는 일본옷을 입고 푸른 조명등 아래, 전기축음기에서 울려 나오는 요란한 재즈음악을 듣는 '재즈기생' 또는 '모던기생'이었던 카페여급은, 공적 향락의 매개자로서의 기생의 전통을 근대적으로 변형하는 낯선 시간성과 국적불명의 공간에서 신여성과 사창(私娼) 사이를 가로지르는 기묘한 존재성을 드러낸다. 1930년대 카페와 여급을 다룬 남성작가들은 문학적 형식을 통해 당대 여급의 존재양식을 초점화하고 카페 공간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연애의 유형을 형상화하였다. 특히 당시 여급과 지식인 남성(작가)의 로맨스를 소재로 한 남성작가들의 작품들은 남녀관계 내부의 권력의 전도가 가져오는 사랑의 균열을 문제 삼거나, 근대 일부일처제의 규범을 이탈하는 불륜을 소재로 하면서 제도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여급의 타자성을 묵인하는 낭만적 연애의 허구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이들이 재현한 여급 가운데에는 연애 관계를 작동시키는 젠더 시스템의 권력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위반하는 전복적인 여급 이미지

또한 발견된다.

이러한 여급과 지식인 남성 간의 연애를 다루는 재현의 시선 속에는 여급을 에로스의 대상으로만 전유하는 당대 남성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으며, 가부장적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안하고 위험한' 여급 이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의 시선이 발견된다. 그러나 문학적 재현물을 통해 재구성되는 카페여급은 그들을 활용하려 했던 식민지 성 산업의 욕망이나 가부장적 시선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근대 지식인 남성 작가의 재현적 틀에 온전히 포섭되지 않는 여성의 '몸'을 제기한다. 당대 카페 공간에서 양산된 남성지식인과 여급의 연애는 자유연애와 근대 일부일처 결혼제도가 충돌하는 틈새의 지점을 가시화하고 남성지배의 규칙에서 이탈하는 젠더·섹슈얼리티의 일시적인 재구조화를 가져온다. 특히, 식민지 당대 카페 안의 여급 속에서 발견되는 위반적인 여성 섹슈얼리티는 문학적 표상의 그물을 넘어서 근대 초기, 남성 중심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이중적 통제 속에 편입되지 않았던 여성 내부의 욕망을 문제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 □ 참고문헌

### 1. 일차자료

『신여성』, 『비판』, 『삼천리』, 『신동아』, 『별건곤』, 『실생활』, 『문장』, 『청색지』, 『여성』, 『女聲』, 『인문평론』, 『신민』, 『개벽』, 『동방평론』(이상 잡지), 『조선일보』, 『동아일보』(이상 신문자료), 『創作 三十二人集』(문장사, 1939),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13』(이주형 외 편, 태학사, 1988), 『이효석 전집-2』(창미사, 1983)

### 2. 이차 자료(단행본 및 연구 논문)

김연희, 『일제하 경성지역 카페의 도시문화적 성격』(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02), pp.1~54.  
김기호 외, 『서울 남촌: 시간, 장소, 사람』(서울학연구소, 2003), pp.244~262.

- 김춘식, 「근대적 문인 집단의 형성과 청춘의 감각」(『한국어문학연구』 40집, 2003), pp.297~324.
- 박영희 외, 『한국문단사』(삼문사, 1982), pp.1~759.
- 서지영, 「식민지 시대 카페여급연구- 여급잡지 <女聲>을 중심으로」(『한국여성학』 19권 3호, 2003), pp.31~73.
- , 「식민지 근대 유흥풍속과 여성 섹슈얼리티- 기생과 카페여급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65집, 2004), pp.132~168.
- 손유경, 「1930년대 다방과 ‘문사’의 자의식」, 『한국문학과 풍속-1』, 한국현대문화회 편(국학자료원, 2003), pp.93~120.
- 안미영,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급고찰- 李箱의 여성관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3호, 2000), pp.289~311.
- 권오만 외, 『종로: 시간, 장소, 사람』(서울학연구소, 2002), pp.172~174.
- 조영복, 『한국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다운샘, 199)7, pp.1~384.
- 조용만,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범양사출판부, 1978), pp.1~331.
- 한국여성연구소 편, 『여성의 몸-시각·쟁점·역사』(창작과비평사, 2005), pp.302~325.
- 크리스토프 르페뷔르, 『카페의 역사』, 강주현 역(효형출판, 2002), pp.1~263.
- 루이스 A. 코저, 『살롱, 카페, 아카데미-지식인과 지식사회』, 이광주 역(지평문화사, 1993), pp.1~223.
- 大林宗嗣, 「女給生活の新研究」 『近代婦人問題名著選集-社會問題編 第三卷』(東京:日本圖書センター, 2002), pp.318~337.
- 藤目ゆき, 『性の歴史學』(東京: 不二出版, 1998), pp.283~308.
- 南博 編, 『近代庶民生活誌 10- 享樂・性』 南博 編(東京: 三一書房, 1988), pp.318~337.
- 清原康正・鈴木貞美 編, 『闊歩する モボ・モガ』(東京: 作品社, 1991), pp.61~74.
- 脇田 晴子, Miriam, Silverberg 編, 『ジェンダ-の 日本史下- 主体と表現 仕事と生活』, 庄山則子 譯(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5), pp.585~604.
- Stephen Vlastos ed., *Mirror of Modernity: Invented Traditions of Modern Japan*, Berkely and Los Angel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8, pp.208~225.

Abstract

## Cafe as one Modern Amusement Quarter and Literature

Suh, Ji-Young

Cafe, the modern amusement quarter spread in urban area like Kyeongseong in 1930s shows the way the commercial distribution of eroticism establishes relations with women like cafe waitress as well as one colonial transformation of the western modernity by way of Japan. The cafe waitress who had economical and educational bases was a subject of enjoying free love and her own pleasure, while professionally supplying decadent service for the male customer. The sportive meetings between the waitress and the male customer in cafe were diversely represented in novels produced in the 1930s. In those novels, cafe waitress appears as a heroine who experiences free love with intellectual males, but she is not allowed to enter the modern marriage system or stays at the marginal spot outside the marriage as a partner of illicit amours with the married man. However, some images of cafe waitress caused and revealed a crack of modern love and monogamy which reconstructed the male dominant desire of the bourgeois class through the threatening images of women who subverted the traditional gender system between man and women and modern norms related with love and sexuality.

**key words** : Cafe, Waitress, Pleasure, Eroticism, Free love, Monogamy, Gender, Sexuality.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